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무엇을 뜻하나요?

지난 주, 선악과, 자유 의지,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자들과 지옥에 갈 자들이 이미 선택되어 예정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영어로 선택은 election(27번), 예정은 predestination이다(총4번).

보통 칼빈의 예정설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핵심: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미리 정해져 있다.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한 예정: 자유의지 불인정, 하나님의 주권

보통 여기에 빠지면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언젠가 믿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반대가 되면 어려워진다. “믿으려고 해도 예정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면 어찌할까?”

일단 더 나아가 전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선택해서 예정한다면 누가 공정하다고 할까?

성경의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이런 분이라면 안 믿는 것이 맞다.”

그런데 성격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항상 옳은 분이다. 자신의 형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고는, 구원만큼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직접 예정한다면 불공평

한 가지 확실한 사실: 땅, 지옥, 천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공정하시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야 하나님 창18: 소돔과 고모라 땅 심판, 의인들도 함께 멸하면 되는가? 24,25절 참조

예정(Predestination)

일단 예정이란 말이 많이 나오지 않으므로 어떻게 쓰였는지 용례를 볼 필요가 있다.

롬8:29,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엡1:5,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엡1:11,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결론: 성경에서 예정이라는 말은 오직 성도들에게만 적용됨: 1.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2. 하나님의 아이로 입양하심, 3. 상속 유업을 받음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예정’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운명(천국, 지옥)과 상관없고 성도들의 신분, 보상

선택(Election)

성도의 구원과 선택, 보상에 몇 단계 과정이 필요하다. 벰전1:2, 롬8:28-30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1. 미리 아심(foreknowledge)
2.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sanctification)
3. 선택(elect): 순종함과 피 뿌림에 이르도록

베드로

1. 미리 아심(foreknowledge): 성경에 총 4번, 행2:23, 롬8:29, 롬11:2, 벰전1:2

대단히 중요한 주제: 의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

사탄과 천사들의 타락, 아담과 이브의 타락, 가룟 유다의 배반, 우리의 죄, 이스라엘의 회복, 예수님을 보내심

시139:1-4, 15-16

미리 아시지만 간섭 No!: 자유 의지, 가룟 유다, 불간섭, 그는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지옥에 감

이스라엘의 불순종: 미리 아시지만 불간섭, 사탄과 마귀들과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 미리 아시지만 그들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로봇이 된다.

그러므로 구원에 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지, 받지 못할지 분명히 미리 아신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죄인, 회개, 예수님만 신뢰

한 사람의 생애 전체를 보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신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믿음으로 그 빛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에 이른 사람이 있고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성경 바로 보기: 라킨의 책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 의지', 1850년 10월 28일 출생, 1869년 5월의 어느 저녁에 YMA에 선포된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음, 하나님은 이를 미리 아신다.

2. 나의 자유 의지에 따른 선택에 따라 성령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신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3. 그리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하신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구원 과정이다.

바울

롬8장에서 바울도 같은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한다.

29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 미리 아심(29), 2. 예정하사 예수님처럼 되게 하심(선택). 그래서 예수님처럼 된 자들이 수도 없이 이 생김. 그래서 아들이 여럿 있지만 그분은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우리는 양자, 공동 상속자(고전 1:30).

3. 예정/선택/성별 이후에 복음을 통해 부르신다. 당연히 이들은 반응한다.

4. 칭의, 5. 영화

이것이 성도의 구원 과정이다. 하나님의 선택, 인간의 자유 의지의 충돌이 없다.

그 이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으로 정하시기 때문에: 구원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함이 핵심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다. 여기의 근거: 그들의 자유 의지 선택

이상한 구절들: 요15:16, 행13:48, 살후2:13, 여기에 반드시 미리 아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엡1:1-14 설명

민족과 개인의 선택은 다르다. 롬1-8은 개인의 구원(칭의), 9-11은 이스라엘의 최종 구원

여기에는 야곱과에서 그리고 파라오가 나온다.

야곱과 에서의 경우: 미리 아심에 따라 역시 야곱을 선택한다(9:10-13). 그에게서 이스라엘을 내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통치를 위한 경륜의 선택이지 구원의 선택이 아니다. 즉 에서의 씨는 전혀

구원받지 못하고 야곱의 씨는 다 구원받음을 뜻하지 않는다. 구원은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다.

여자의 씨, 메시아를 내기 위해 한 민족을 택하셨다. 구원의 기회는 모두에게 주신다.

파라오의 경우: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결국 믿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냐?

롬9:18, 출4:21 근거, 실제로 주님이 그를 강박하게 하신 것은 출9:12, 이때는 6째 재앙

1-5 재앙까지는 파라오가 스스로를 강박하게 함(8:15, 19, 32 등)

역시 미리 아심을 보고 그를 강박하게 하심, 롬9:18 바로 이해

사람 편에서는 믿어야 한다. 구원 관련 구절의 99.9%는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요3:16; 롬10:9-10,

13). 선택이 된 것 같은 몇몇 구절은 미리 아심을 대입하면 해결됨

성경의 맨 끝에서 주님의 마지막 초청(계22:17)

Elect라는 말의 용례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하면 다 신약 시대 교회에 속한 자들로 생각하면 안 된다.

1. 예수님(사42:1)
2. 이스라엘(사45:4)
3. 환난기의 이스라엘(마24:24; 31)
4. 신약 교회 성도(롬8:33; 골3:12, 벰전1:2, 2:6, 요2 1, 13 등 바울, 베드로, 요한 서신)

성도라는 말도 비슷하다.

1. 구약성경의 성도는 대부분 구약 시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단7:18, 21, 25, 27, 마27:52 등)
2. 신약시대 성도(행9:13, 롬1:7 등 바울 서신)
3. 환난기 성도들(계13:7, 10 등)